

목 차

- I. 머리말
- II. 慶尙 南海岸 松菊里文化의 특징
 - 1. 慶尙 南海岸 松菊里文化의 共通要素
 - 2. 地域圈 設定과 圈域別 特徵
- III. 他地域과의 交流
- IV. 맺음말

慶尚 南海岸의 松菊里文化

유 병 록(우리문화재연구원)

I. 머리말

경상도는 한반도의 최남동쪽에 해당하며 동쪽과 남쪽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다. 이는 반대로 북쪽과 서쪽은 육지로 연결된다는 것으로 산지가 험한 북쪽보다는 상대적으로 교통로가 발달한 서쪽의 호남과 호서지방과의 교류가 많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경상도지역은 송국리문화에서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던 지역이었다. 물론 1980년대 후반 居昌 大也里나 1990년 蔚山 檢丹里유적에서 일명 ‘檢丹里型’이라고 하는 松菊里型住居址의 출현으로부터 그 역사가 시작되었지만 嶺南의 일부 현상이라고 여겨졌었다. 그러던 것이 1990년 말 晉州 南江댐 水沒지구인 大坪里유적의 발굴을 시작으로 大邱 東川洞, 梁山 所土里, 淸道 陳羅里를 비롯한 洛東江 中·下流지역 뿐 아니라 上流지역인 尙州에 이르기까지 영남 각지에서 송국리형주거지가 확인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영남 각지의 송국리유적의 조사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되는 각종 유구들의 조사도 함께 진행되어 오면서 조사자료의 증가는 단순한 송국리문화의 확인단계를 넘어서 이 지역에서의 송국리문화의 성격이나 원류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논쟁거리를 던져주고 있다.

본 발표는 제주도 송국리문화와 관련성과 함께 이번 기회에 영남지방, 특히 남해안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살펴보고 그 시작과 이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II. 慶尚 南海岸 松菊里文化의 特徵

1. 慶尚 南海岸 松菊里文化의 共通要素






慶尙道 즉, 嶺南地方의 松菊里文化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① 領域上으로 北으로는 洛東江 中流 始作點(尙州)까지, 東으로 慶州와 蔚山을 포함하지 않는 북서-남동방향의 도면 1의 點斜線 남쪽으로 東海쪽 유적은 전 무하다.
- ② 松菊里型 聚落은 대부분 平地인 沖積地에 입지한다. 특히 大規模聚落은 예 외없이 沖積地에 立地한다.
- ③ 住居型¹⁾은 休岩里型, 松菊里型, 大坪里型, 梧谷里型, 東川洞型 모든 형식이 확인된다.
- ④ 토기 중에 鉢形土器에 把手가 붙은 것이 있다(동해지역에도 확인,도면 11).
- ⑤ 부리형석기가 출토된다(영남지방을 벗어나면 거의 확인 안 됨).
- ⑥ 聚落의 관련 農耕遺構는 대부분 밭이다.
- ⑦ 墳墓에 墓域支石墓(윤호필 2009)가 확인된다(특히 南海岸으로 大形 집중).
- ⑧ 松菊里型住居址에서 粘土帶土器 段階의 遺物 출토 예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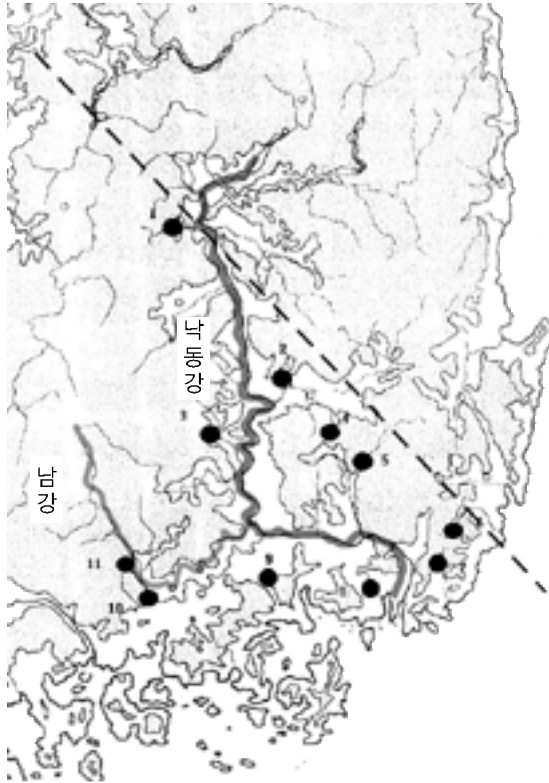
이상과 같은 경상도 송국리문화의 특징을 중심으로 다시 구분하여 경상내륙과 남해안지역과의 차이를 언급하자면 다음 표 2와 같다. 이 둘의 구분은 합천-창녕-울산을 연결하는 東西軸을 기준으로 낙동강 중류와 하류의 기점이기도 하다.

1) 이번 발표의 송국리형주거지 형태별 명칭은 다음과 같다.

〈표1〉 송국리형주거지 관련 形態分流案

住居型	內容	形態
休岩里型 (安在皓 1992)	平面 方形, 抹角方形 橢圓形 中央豎穴, 豎穴내 2개 主柱	
大坪里型	抹角方形 中央豎穴 外部 2主柱	
松菊里型 (河仁秀 1989)	平面 圓形, 平面 方形인 休岩里型에 對應하는 概念으로 設定	
梧谷里型 (安在皓 2001)	平面 圓形, 中央豎穴 外部 2主柱	
東川洞型 (俞炳 2002)	平面 圓形, 方形 中央豎穴 없이 2主柱만	

한편, 한국 송국리형주거지에 대해 연구한 端野晉平 등(2006)은 중앙수혈내 양 주혈을 가진 평면 방형의 休岩里型和 평면 원형의 松菊里型을 祖型으로 중앙수혈 바깥에 양 주혈을 가진 남강유역 大坪里遺蹟에서 다수가 출토되는 平面 圓形과 方形을 모두 합쳐 '大坪里式'으로 규정하였다.



1. 상주 복룡동
2. 대구 동천동
3. 고령 쾌빈동
4. 청도 진라리
5. 밀양 희곡리
6. 울산 검단리
7. 양산 소토리
8. 김해 율하리
9. 함양 오곡리
10. 진주 평거동
11. 진주 대평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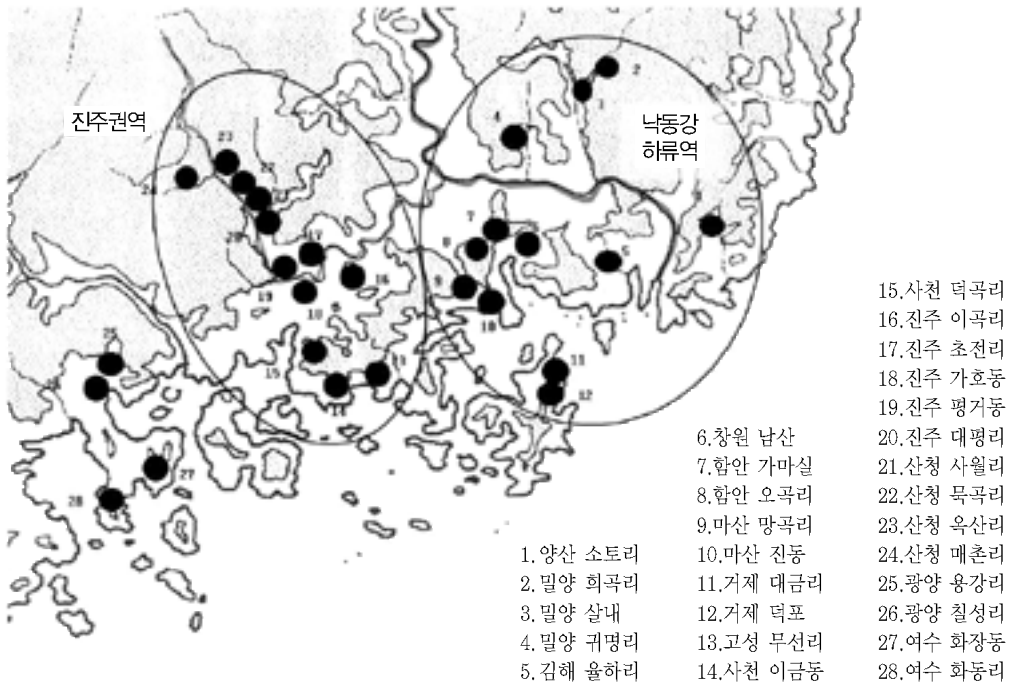
〈도면 1〉慶尚道地方 主要 松菊里遺蹟 位置圖

〈표2〉慶尚道地方 松菊里文化 地域區分과 그 特徵

요 소	慶尚道 内陸	南海岸	
聚落立地	沖積地(일부 平地 丘陵)	丘陵立地 일부 있음	
住居型	大坪里型和 梧谷里型이 다수를 차지, 東川洞型도 집중	일부 휴암리형, 대평리형과 오곡리형 혼 재, 동천동형 없음	
遺物	土器	把手鉢 다수	파수발 소량
	石器	長方形·橢形 석도	삼각형 석도는 대평리유적만
農耕	밭(區畵溝)	밭, 일부 논	
墓制	石棺(槨)墓, 墓域支石墓 많지 않음 石蓋土壙墓 없음	석관묘 외에 묘역식 다수 분포 석개토광묘 고루 분포(도면 6)	
主 分布圈	大邱中心, 상주, 김천, 고령, 경산, 청도	남강 대평리유적 대표적, 남해안따라 고루 분포	
聚落類型	東川洞類型 중심	大坪里類型, 德川洞-栗下類型	

표 2에서와 같이 같은 경상도지역이지만 낙동강 중상류역의 내륙과 남해안지역과 뚜렷한 차이점이 확인되고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주거형태에서 내부 중앙수혈이 없는 동천동형의 출현이다. 이러한 형태는 호서지방 송국리형주거지의 출현이 경기도지방의 세장방형(橋下里 1호) → 장방형(古康洞 1호) → 주혈만 2개 있는 장방형(盤松里 11호) → 주혈만 2개 있는 원형(素砂洞 4호)이나 말각방형(盤松里 12호)이 중국에는 송국리형주거지로 변화되었다는 견해(이형원 2006, 도면 4)와 같이 영남지방에 있어서도 동천동형의 의미를 동일시하는 안재호(2006b; 2009)의 견해가 있다. 이는 결국 송국리문화 一元論的 傳播說이 아닌 한반도 남부 각지의 自生說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최종규(2005)는 이러한 동천동형 주거지를 비롯한 동천동유적과 같은 취락구조를 가진 ‘東川洞類型’(유병록 2002)에 착안하여 각 지역별로 지방유형을 설정하여 남강 중류역은 ‘大坪里類型’, 남해안 지역은 ‘德川里-栗下類型’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다²⁾.



〈도면 2〉 慶尙 南海岸 松菊里文化 主要遺蹟 分布圖(25~28은 全南 東部)

2) 덧붙여 호서지방의 경우에도 休岩里遺蹟을 기준으로 한 ‘休岩里類型’과 松菊里遺蹟을 기준으로 한 ‘松菊里類型’을, 제주도의 경우에도 대표적인 송국리형유적인 三陽洞유적을 기준으로 한 ‘三陽洞類型’의 설정을 제안하였다.

2. 地域圈 設定과 圈域別 特徵

경상도 남해안 송국리문화권은 일부 차이에 의해 크게 다시 두 지역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하나는 전라도와 접경을 하고 있는 경상도 서편의 남강 상·중류의 진주권역과 동편의 낙동강하류역이라 할 수 있다. 지리적으로 보면 남강은 경상도 서부지역을 거의 남북방향으로 흘러내리다가 다시 동서방향으로 ‘ㄴ’자 형태로 꺾여 다시 함안에서 낙동강과 합류하기 때문에 남강 역시 낙동강의 한 지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두 권역간 특별한 자연적 지형물이 없어 그 지역차가 인정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지만, 유구나 유물에서 그 차이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 구분하였다.

〈표3〉 慶尙道 南海岸 松菊里文化圈 設定

요 소	晉州圈域(大坪里類型)	洛東江 下流域(德川洞-栗下類型)
地 域	남강 중류, 진주, 사천	함안, 마산, 창원, 밀양, 김해, 양산
住居型	大坪里型 다수(특히 진주지역 집중)	梧谷里型 中心
赤色磨研壺 (도면5)	橫沈線文토기 晉州式 ³⁾ ?	咸安式 ⁴⁾
把手鉢	소량	소량
부리형석기	다량(대평리유적)	소량
墓域支石墓와의 관계	묘역식은 옹곡리형과 관련 가능성(묘역식과 대평리식의 중복관계 확인: 산청 매촌리) 남강 대평리유적내에서는 원형묘역식 1기가 유일.	
流入經路	금강상류(김승욱 2006) 전남동부 ⁵⁾ ?	진주권역에서의 전파? 낙동강중류에서의 영향(안재호 2006b)?

이렇게 지역에 따라 구분된 각 권역의 송국리형 주거지의 출토유적에서의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3) 진주 남강 대평리유적을 중심으로 한 진주, 사천, 산청지역의 적색마연토기는 뚜렷하게 內傾外反하는 ‘함안식(배진성 2005a; 송영진 2006)’에 비해 경부가 없거나 거의 축약되어 동체부에서 구연부로 바로 연결되는 토기를 표지적으로 하여 ‘진주식’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 4) ‘함안식’ 적색마연토기를 명명하였던 배진성은 최근 함안식은 송국리형주거지의 가장 늦은 단계이자 원형점토대 토기단계의 유물일 가능성을 언급하였다(배진성 2008).
- 5) 도면 7에서와 같이 전남 동부의 광양이나 여수지역은 대평리형이나 옹곡리형보다 휴암리형주거지가 월등 다수 분포하고 있으면서 특히 여수 화동리 안골유적의 경우 진주 가호동이나 평거동, 사천 이금동에서 출토된 바 있는 방향의 묘역식지석묘가 확인된다는 점에서 관련성이 주목된다.

〈표 4〉 晉州圈域 主要遺蹟 住居型(松菊里型 基準) 出土狀態

遺蹟名	住居型	其他
南江 大坪里 (魚隱 2, 玉邦 1~3·5·7~9)	대평리형 98, 휴암리형 29, 오곡리형 9	묘역식 지석묘(원형) 1
晉州 平居洞	19동 중 대평리형 14, 오곡리형 5	묘역식 5(세장방형 1, 방형 4)
晉州 加虎洞	21동 중 대평리형 16, 오곡리형 5	묘역식 10(장방형1, 원형 2, 방형 3, 타원형 4), 지상식에서 지하식 변화 환호, 석개토광묘 3
晉州 草田洞	20동 중 대평리형 15, 오곡리형 5	묘역식 없음
山淸 玉山里	38동 중 대평리형 34, 오곡리형 4	
山淸 沙月里	6동 중 휴암리형 1, 대평리형 2, 송국리형 1, 오곡리형 2	저구릉, 환호
山淸 梅村里	12동 중 대평리형 3, 오곡리형 2, 8동은 내부시설 확인 안됨(원형 5, 방형 3)	묘역식 9(세장방형 3, 원형 6) 세장방형은 매장주체부 없음 대평리식주거지와 중복(묘역식 후대)
泗川 利琴洞	19동 중 오곡리형 19	묘역식(대형 장방형 3, 장방형 20, 원형 2)
固城 無仙里	4동 중 3동 평면원형에 타원형수혈과 4주혈식	

〈표 5〉 낙동강 하류역 주요유적 주거형 출토상태

遺蹟名	住居型	其他
梁山 所土里	12동 중 오곡리형 11(타원형)	구릉, 석개토광묘
密陽 살내	8동 모두 오곡리형	
密陽 貴明里	6동 모두 오곡리형	구릉
金海 栗下里	28동 중 대평리형 9, 오곡리형 18, 송국리형 1	묘역지 석묘
昌原 南山	4동 중 오곡리형 3, 대평리형 1	구릉, 환호
咸安 梧谷里(+가마실)	5동 중 오곡리형 4, 대평리형 1	구릉
馬山 望谷里	12동 중 오곡리형 11	묘역지 석묘, 환호
巨濟 德浦·間谷	4동 중 오곡리형 2	

Ⅲ. 他地域과의 交流

앞서 살펴본 경상도 남해안 지역 송국리문화는 경상도 내륙에서의 자체 발생적하여 전파된 문화라는 의견(안재호 2006b)도 있지만, 일부는 금강상류쪽 호서지방으로부터의 파급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은 인정되어야 할 듯 하다⁶⁾.

그럼, 이렇게 육지의 마지막인 지점까지 도달한 송국리문화의 그 이후는 어떻게 되었을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지금까지의 연구로 보아서는 경상남해안의 송국리문화는 주로 일본 북부구주로 유입되어 선진문물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안재호 2001;유병록 2009).

그렇다면, 경상도 남해안과 제주도와의 관련성은 전혀 없는 것인가?

제주도 송국리문화의 특징을 보면 송국리형주거지와 함께 점토대토기가 같이 출토된다는 점이다. 이는 일본과도 유사한 현상⁷⁾으로서 두 곳 모두 섬으로서 육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새로운 문물을 수용한 유적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제주도 송국리문화는 가장 가까운 서남해안의 영향을 받은 증거가 확인된다. 북제주의 삼양동유적에서는 송국리형주거지 52기 중 평면원형에 내부 타원형수혈안에 주혈이 배치된 송국리형이 90%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도(김경주 2005).

물론, 경상 남해안과 제주도의 관련성은 송국리형문화(3단계) 이전의 진주 남강 2단계(방형주거지+공열토기)의 문화 요소 중 공열토기 등의 혼암리유형문화가 제주 상모리유적 등과 연관성을 추측하고 있기도 하다(이청규 2001)⁸⁾.

그러나, 역시 송국리형단계에서 경상 남해안과 제주지역과의 관련성을 찾아보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오히려 제주도가 문화전파의 중간 기착지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일본의 지석묘의 경우 야요이 전기에 확인되는데, 분포권으로 보면 북구주의 서쪽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지석묘의 원류가 한반도, 특히 호남지방에서 일본으로 건너가는 중간 지점으로서 제주도를 주목하게 되었다는 점이다(甲元眞之 1997)⁹⁾. 그러나 두 지역간 지석묘 구조상의 차이가 있고, 최근에는 일본 지석묘의 전파지점으로서 경상 남해안쪽으로 그 시선이 옮겨지고 있는 상황이다(田中良之 2001).

또 다른 시각은 역시 일본에 전해진 공열토기에 관한 것이다. 일본에서 확인되는 공열토기는 크

6) 최근 금강 최상류에서 동쪽 소백산맥(三道峯)을 넘으면 바로 나오는 김천시 智佐里유적(낙동강 지류인 부항천)에서 1차로 조사된 청동기시대 주거지 87동 중 65동(말각방형 2, 원형 63)이 이른바 '東川洞型' 주거지로서 단일유적에서 최대의 숫자를 기록하였다(대동문화재연구원 2009). 이러한 동천동형주거지는 호서지방의 경우 청주 봉명동과 천안 대흥리에서도 확인된 바 있으나 소수에 불과하다.

7) 물론 일본 구주의 경우 송국리형주거지와 점토대토기가 동시에 들어간 것은 아니며, 전자가 우선적으로 유입된 이후 곧이어 후자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 결과 송국리형주거지의 출토지와 원형점토대토기 출토지가 거의 비슷하다는 점이다.

8) 그러나 이청규의 발표에 토론자로 나선 조현종의 지적(전국문화원연합회 제주도지회 2001)처럼 대평리유적의 공열토기와 제주 상모리 공열토기의 공열 시문방식이 차이가 있어 문제가 있다.

9) 예를 들면 제주시 오라동 A지구 제10호 지석묘의 경우 11매의 판석을 원형으로 매장주체부를 둘러싸고 그 위에 상석을 얹은 형태인데, 이러한 비슷한 형태가 일본 長崎縣 原山유적 C군 제3호 지석묘와 닮아 있다는 점이다.

계 3개 지역권으로 나누어지며 그 전파지는 당연 한반도로 추정하고 있다. 북부구주와 山陰지방, 그리고 구주 남동부지역이다. 이들 중 특히 구주 남동부쪽의 경우 일본 재래 조몽토기에 공열이라는 모티프가 전해지면서 그것만 반영되었는데, 구연부에 구멍을 뚫는 방법상에 있어 주로 바깥에서 안쪽으로 뚫는 것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양상은 제주도 상모리유적¹⁰⁾에서도 똑같이 확인되는 상황으로서 일본 구주 남동부쪽 공열토기의 전파지역으로서 제주도를 지목하고 있다(천선행 2008:2009, 도면 9).

그러나, 이러한 제주도 경우설은 아직 명확히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로서 선사시대에 제주도인과 일본 구주민들이 서로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도 의문이지만, 무엇보다 항해술이 발달하지 않은 선사시대의 경우 파도가 심한 外海를 통해 제주도와 일본을 연결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며¹¹⁾, 우연히 조난을 당하기도 매우 어려운 일임은 연구결과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정진술 1992, 도면 12).

IV. 맺음말

경상도의 경우 송국리문화가 완전히 점유를 한 곳은 아니다. 현재로서는 거의 절반이 넘는 지역에서 그 흔적이 확인되지만, 나머지 지역의 경우에는 기존 재지계의 강력한 방어력 덕분인지 일단 송국리형주거지가 주변부(울산 검단리, 양산 신평유적)를 제외하고는 송국리문화가 동해지역으로 유입되는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¹²⁾. 이와는 반대로 남해안의 경우는 전 지역이 모두 송국리문화의 전성기를 보여줄만큼 다양한 문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나중에는 일본으로 건너가 야요이문화를 일으키는데 일조하였다는 점에서 문화적인 성숙도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주제인 제주도의 송국리문화와의 관련성은 직접적으로 찾는다는 무리였지만, 남해안의 송국리문화도 그 문화적 역량을 제주도와 같은 섬지역으로 전해줌으로서 그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위안을 삼고자 한다.

10) 실제 상모리유적 보고서를 통해 공열문이 확인된 총 133점의 토기편을 분석한 결과 바깥에서 안쪽으로 구멍을 낸 것이 98점(74%), 그 반대의 경우가 22점(16%), 관통한 경우가 13점(10%)에 이르렀다.

11) 천선행은 8~9세기 遣唐使의 항로를 예를 들며, 중국 抗州, 揚州와 일본 五島列島를 잇는 항로와 揚州에서 庵美大島를 거쳐 鹿兒島를 잇는 항로가 제주도 남쪽을 횡단하는 루트라고 한다. 이들 항로들이 쿠로시오해류를 이용한 것으로 한반도 서남부지역에서 일정정도 남쪽으로 가면 일본 동해안으로 흐르는 쿠로시오해류를 타고 남부구주지역으로 도달가능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천선행 2009).

12) 그렇다고 문화교류 자체가 단절된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울산지역 후기의 특징적 유물인 파수부발 토기의 분포지역의 경우 송국리문화 경계선을 넘어 대구와 그 주변까지 넓게 분포권을 형성(배진성 2005; 유병록 2007, 도면 10·11)하고 있어 모든 요소가 차단된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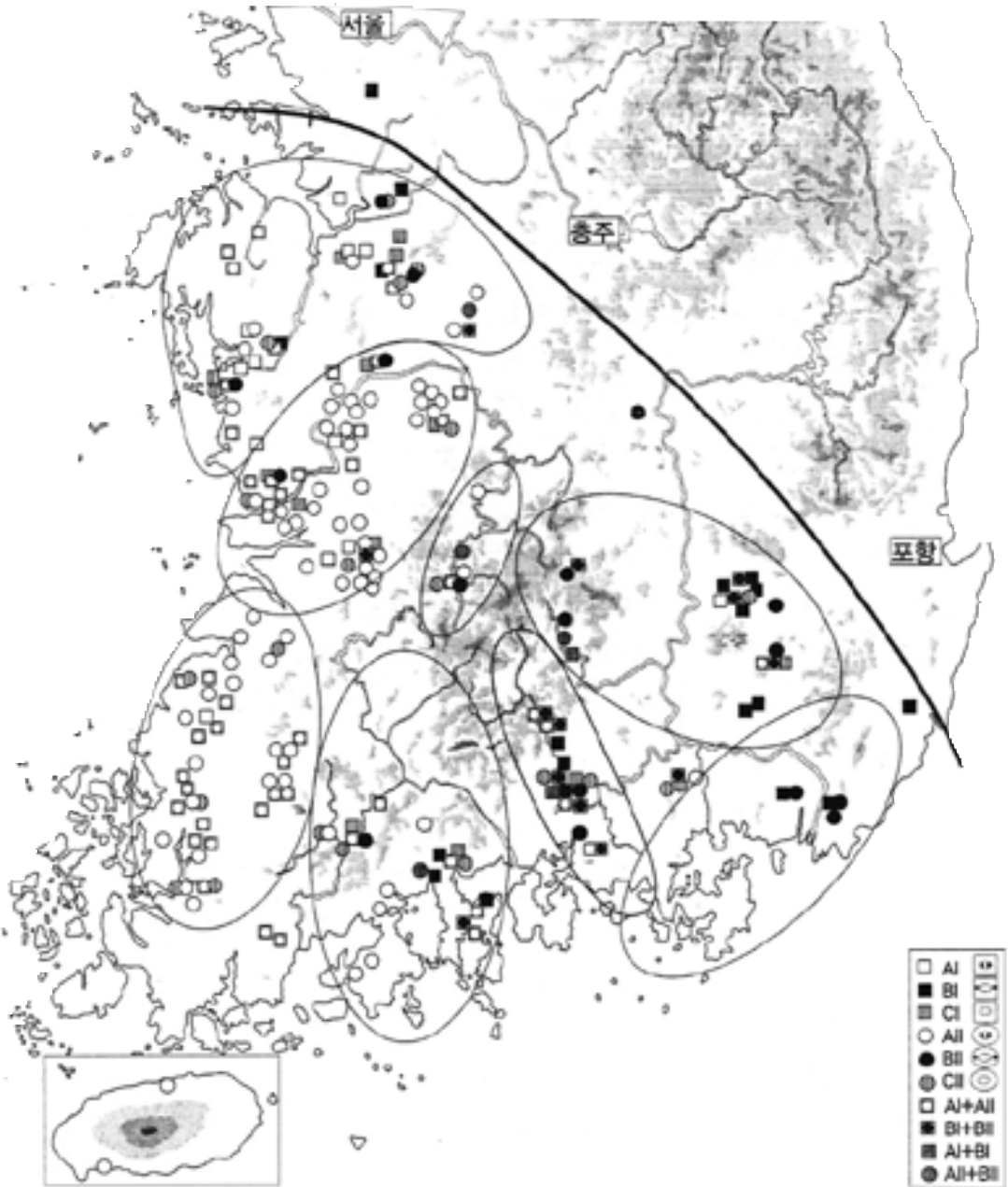
다만, 육지의 송국리문화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제주도와 일본으로 유입된 원인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런 것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갑작스런 요인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원인분석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감사의 말] 이번 발표준비를 하면서 자료나 빈약한 저의 지식을 채워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나다 順, 존칭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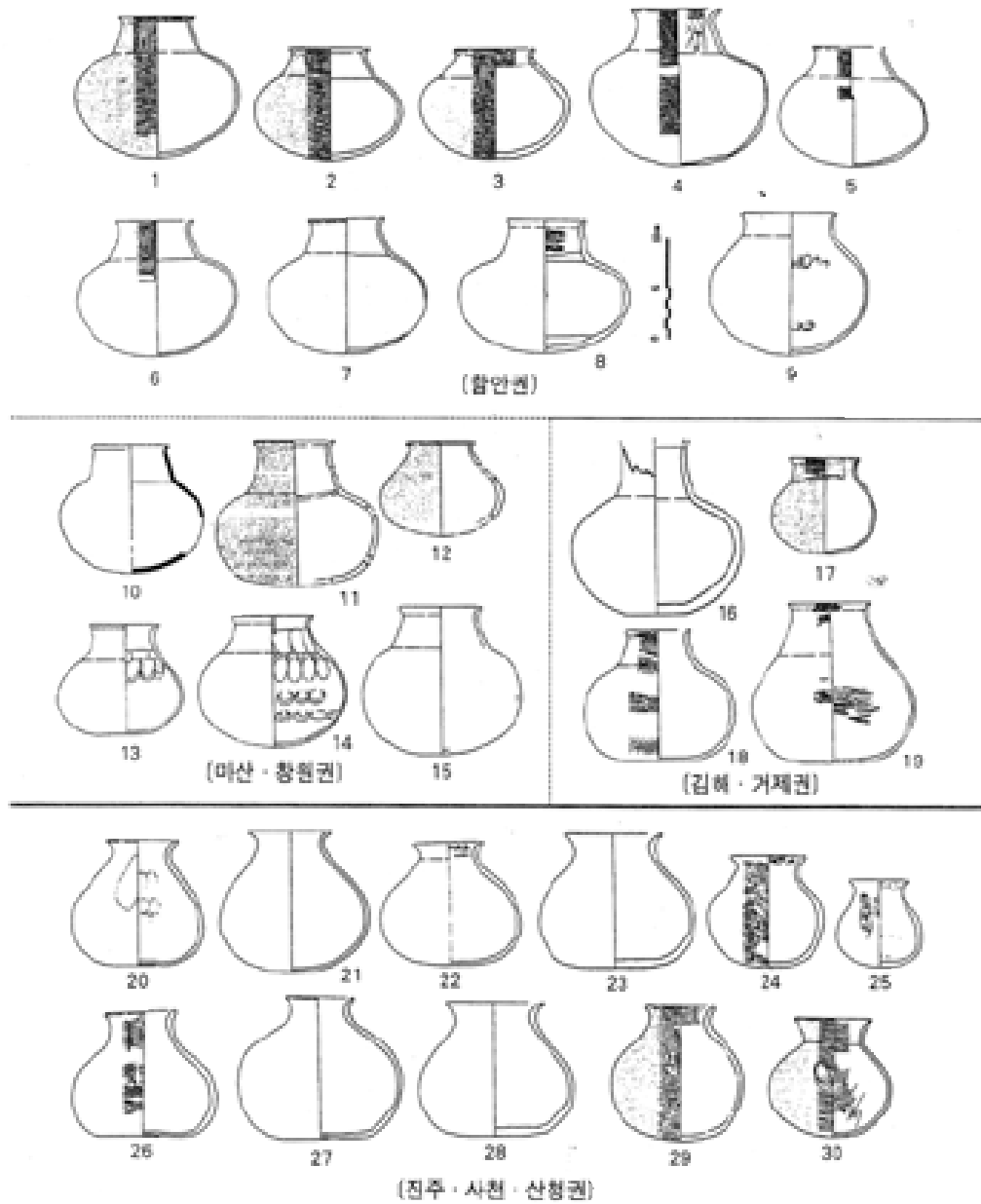
고민정, 김병섭, 방문배, 배덕환, 배진성, 안재호, 윤호필, 천선행, 황창한

- 甲元眞之, 1997, 「朝鮮半島の支石墓」『東アジアにおける支石墓の総合的研究』平成6~8年度科學研究費補助金研究成果報告書, 九州大學文學部考古學研究室.
- 고민정, 2003, 『南江流域 無文土器文化의 變遷』慶北大學校大學院 考古人類學科 碩士學位論文.
- 고재원, 2009, 「제주지역의 청동기문화 -2000년대 조사성과를 중심으로-」『섬, 흙, 기억의 고리 -지난 10년간의 발굴 기록-』국립제주박물관.
- 국립제주박물관, 2009, 『섬, 흙, 기억의 고리 -지난 10년간의 발굴 기록-』.
- 김경주, 2005, 「耽羅成立期 聚落의 形成과 變遷」『湖南考古學報』22輯, 호남고고학회.
- 김승옥, 2006, 「松菊里文化의 地役卷 設定과 擴散過程」『錦江: 松菊里型 文化의 形成과 發展』湖南·湖西考古學會 合同學術大會發表要旨.
- 김진영, 1009, 「여수반도 지식묘의 양상」『전남 동남해안지역의 지식묘』청동기학회 모제분과 워크숍, 청동기학회.
- 端野晉平他, 2006, 「韓半島南部の松菊里型住居址・掘立柱建物と集落構造」『彌生集落の成立と展開』제55회매장문화재연구집회 발표요지집, 매장문화재연구회.
- 都出比呂志, 1998, 「いわゆる松菊里型住居と彌生住居」『先史日本の住居とその周邊』同成社.
- 武末純一, 2002, 「日本 北部九州에서의 國의 形成과 展開」『嶺南考古學』30, 嶺南考古學會.
- 박진일, 2007, 「粘土帶土器로 바라본 初期鐵器·彌生時代 歷年代考」『한일문화교류, 한반도와 일본 규슈』기획특별전 ‘요시노리가, 일본속의 한국’ 기념 학술심포지엄.
- 방문배, 2004, 「제주지역 출토 점토대토기에 대하여 -유입과정 및 시기를 중심으로-」『濟州文化財研究』제2호, 제주문화예술회관 문화재연구소.
- 배덕환, 2009, 『嶺南 南部地域 靑銅器時代 住居址 研究』동아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진성, 2005a, 「檢丹里類型의 성립」『韓國上古史學報』제48호, 한국상고사학회.
- 배진성, 2005b, 「咸安地域 지식묘의 특징과 地域性 -咸安式赤色磨研壺의 설정을 겸하여-」『咸安地域 調査』경남고고학연구소.
- 배진성, 2008, 「咸安式赤色磨研壺의 分析」『韓國民族文化』.
- 西谷 正, 1998, 「松菊里型住居の分布とその意味」『先史日本の住居とその周邊』同成社.
- 小澤佳憲, 2006, 「玄界灘沿岸地域の彌生時代前半期集落の様相」『彌生集落の成立と展開』第55回埋藏文化財研究集會 發表要旨集, 埋藏文化財研究會.
- 安在浩·洪普植, 1998, 「三韓時代 嶺南地方과 北九州地方의 交渉史 研究 -竝行關係를 中心으로-」『韓國民族文化』12, 釜山大學校 韓國民族文化研究所.
- 안재호, 2001, 「無文土器時代의 對外交流 -釜山·慶南과 北九州를 통하여-」『港都釜山』第17號, 부산광역시.
- 안재호, 2004, 「韓國農耕社會의 成立」『第3回歷博國際シンポジウム東アジアにおける農耕社會

- の形成と文明への道』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第119集.
- 안재호, 2006a, 「日本 彌生 初期 農耕聚落의 展開」 『嶺南考古學』39號, 嶺南考古學會.
- 안재호, 2006b, 『靑銅器時代 聚落研究』釜山大學校大學院考古學科博士學位論文.
- 안재호, 2009, 「松菊里文化成立期の嶺南社會と彌生文化」 『彌生時代の考古學』2-彌生文化誕生-, 同成社.
- 유병록, 2007, 「淸道 陳羅里遺蹟 출토유물의 편년과 그 위치」 『嶺南文化財研究』제20집, 영남문화재단연구원.
- 유병록, 2009, 「日本 九州地方 松菊里文化의 向方」 『韓日 聚落研究의 새로운 視覺을 찾아서』 한일취락연구회 제5회 공동연구회 발표문, 한일취락연구회.
- 윤호필, 2009, 「靑銅器時代 墓域支石墓에 관한 研究 -機能과 意味를 중심으로-」 『경남연구』 제1호,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논집.
- 이해수, 2008, 『南江流域 松菊里式住居址 研究』 동아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청규, 1995, 『濟州道 考古學研究』 학연문화사.
- 이청규, 2001, 「제주도고고학의 재조명 -상고시대 제주의 사회와 경제-」 『향토사학술세미나』 전국문화원연합회제주도지회.
- 이형원, 2006, 「泉川里聚落·編年的位置와 그 變遷 -송국리유형의 형성과 관련하여-」 『華城 泉川里 靑銅器時代聚落』, 한신대학교박물관.
- 전국문화원연합회 제주도지회, 2001, 『향토사 학술 세미나』.
- 鄭漢德·李在賢, 1998, 「南海岸地方과 九州地方의 靑銅器時代 文化 研究 -繩文晩期~彌生前期の 墓制와의 比較를 中心으로-」 『韓國民族文化』12, 釜山대학교 韓國民族文化研究所.
- 田中良之, 2001, 『彌生時代における九州·韓半島交流史の研究』平成12年度 韓國國際交流財團造成事業 共同研究プロジェクト研究報告書, 九州大學大學院 比較社會文化研究院基層構造講座.
- 정진술, 1992, 「韓國先史時代 海上移動에 관한 연구」 『제주도사 연구』2, 제주도사연구회.
- 千羨幸, 2008, 「西日本の孔列土器」 『日本考古學』第25号, 日本考古學協會.
- 천선행, 2009, 「무문토기시대 한일간 지역관계변천」 『古文化』제73집, 한국대학박물관협회.
- 최종규, 2005, 「所土里유적에서 본 松菊里文化의 一斷面」 『梁山 所土里 松菊里文化集落』, 경남고고학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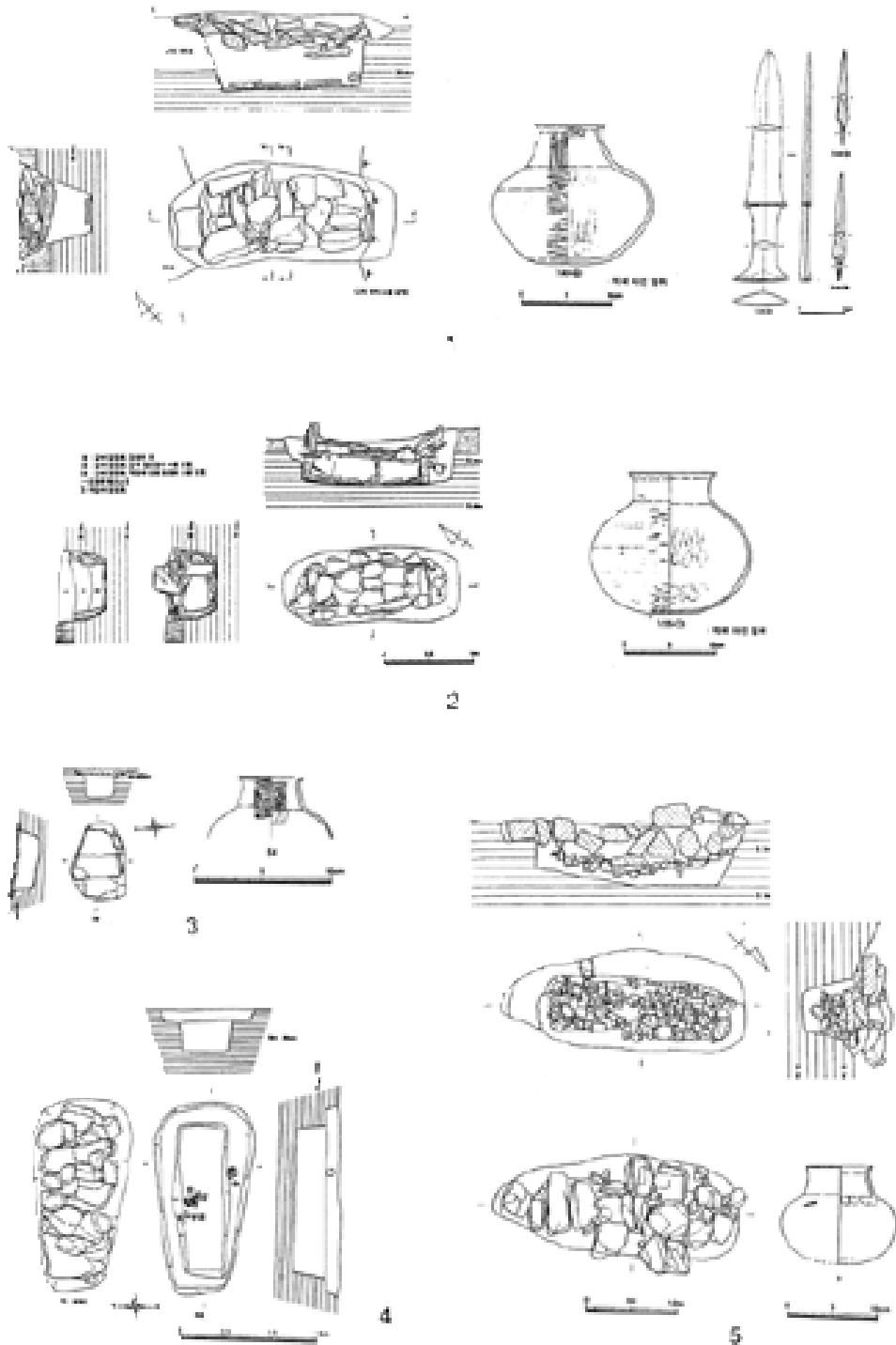


〈도면 3〉 남한 송국리주거지 형태별 분포도(김승욱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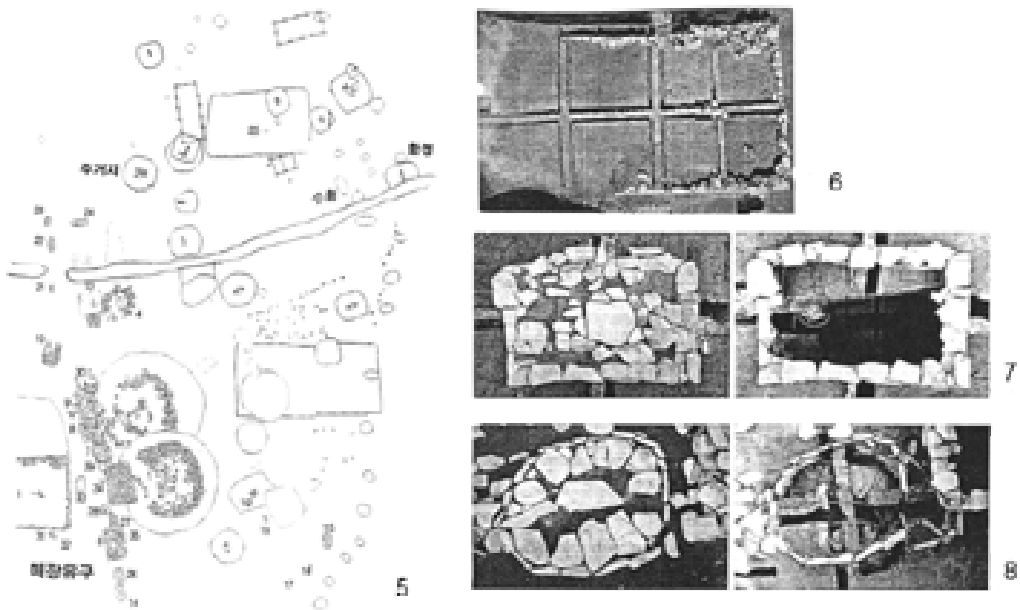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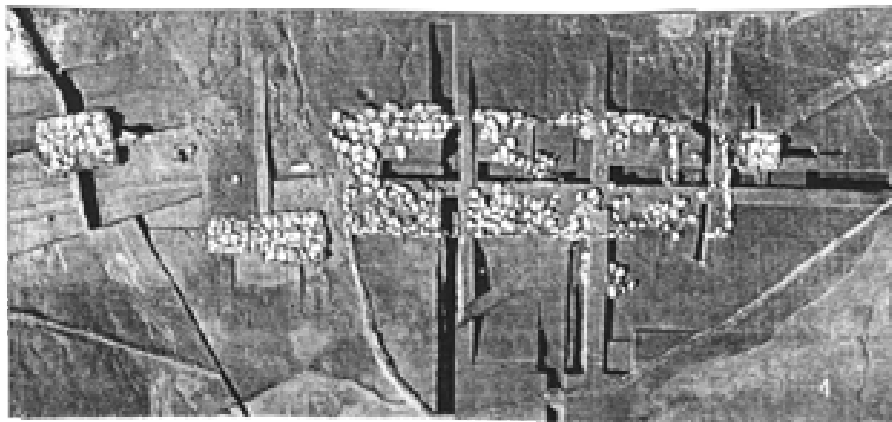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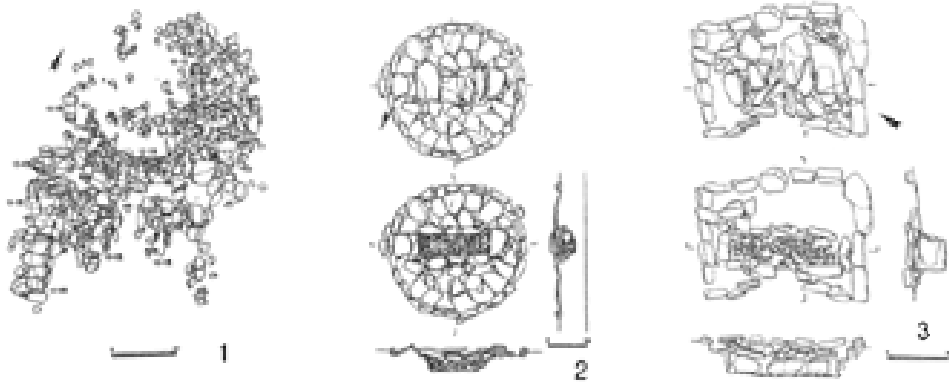


1~3: 함안 오동, 4~5: 함안 오곡리, 6: 의령 석곡리, 7~9: 함안 가마실	
10: 창원 지동리, 11~12: 창원 삼남, 13~14: 마산 신촌리, 15: 창원 역전리	16: 거제 마두동, 17: 김해 피천리, 18~19: 김해 내동
20: 사천 방지리, 21~25: 진주 옥항2지구, 26~28: 산청 사월리, 29~30: 진주 서문2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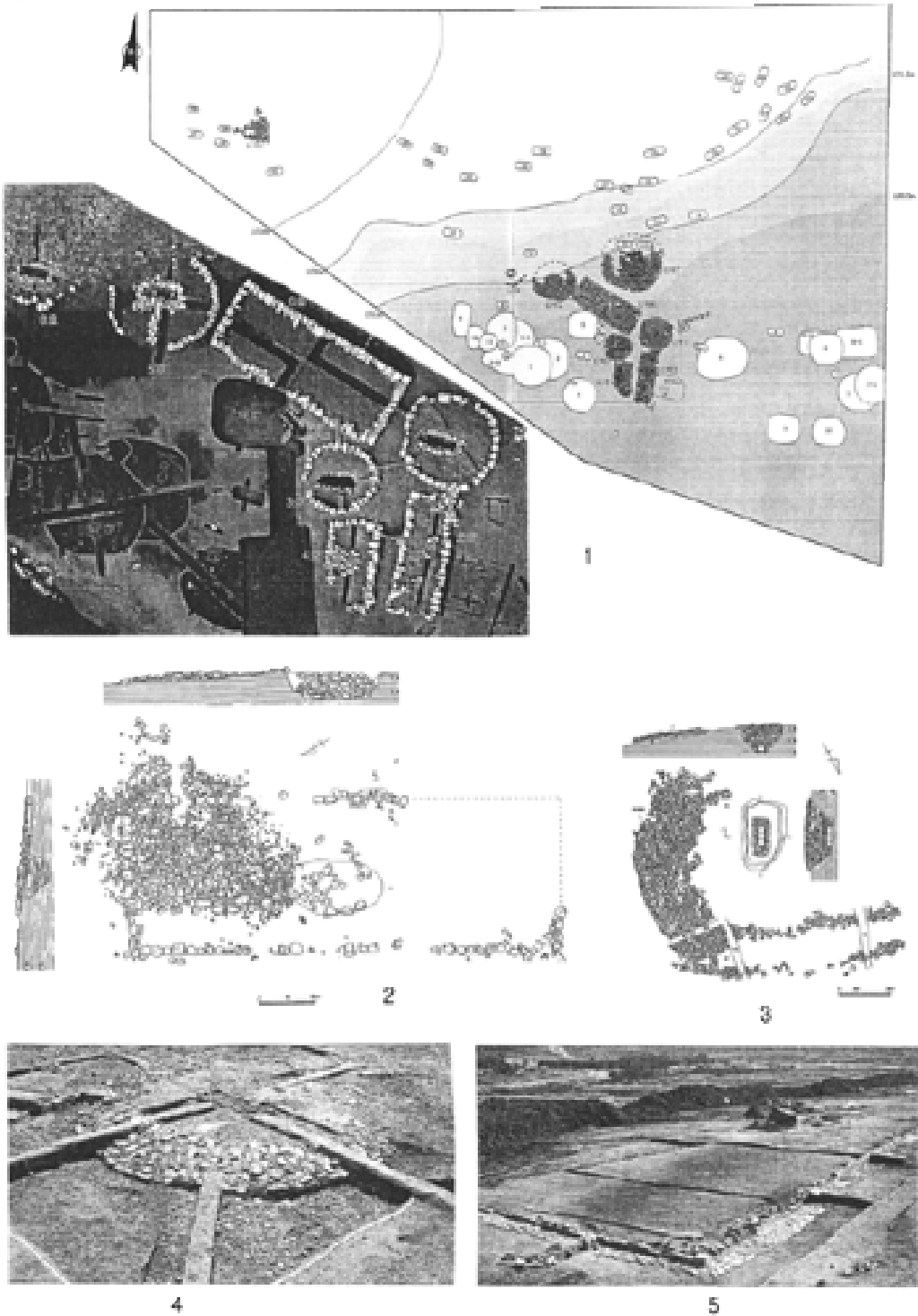
〈도면 5〉 경상 남해안 송국리문화 단계 적색마연호의 지역별 분류(배진성 2005b)



〈도면 6〉 경상 남해안 석개토광묘 (1:양산 소토리 40호, 2:소토리 55호, 3:함안 오폭리 7호, 4:오폭리 8호, 5:김해 율하리 A2-16)



〈도면 7〉 全南 東部 및 晉州 圈域 墓域 支石墓 ① 麗水 화동리 12·13호 ② 同 15-1호 ③ 同 15-2호 ④ 晉州 平居洞 ⑤ 진주 가호동 배치도 ⑥ 同 지석묘 1호 ⑦ 同 지석묘 6호 ⑧ 同 지석묘 7호



〈도면 8〉 晉州圈域 및 洛東江下流域의 墓域支石墓 (①山淸 梅村里 ②金海 栗下里 A-17호 ③金海 栗下里 A-19호 ④馬山 鎭同 가구역 1호 ⑤昌原 德川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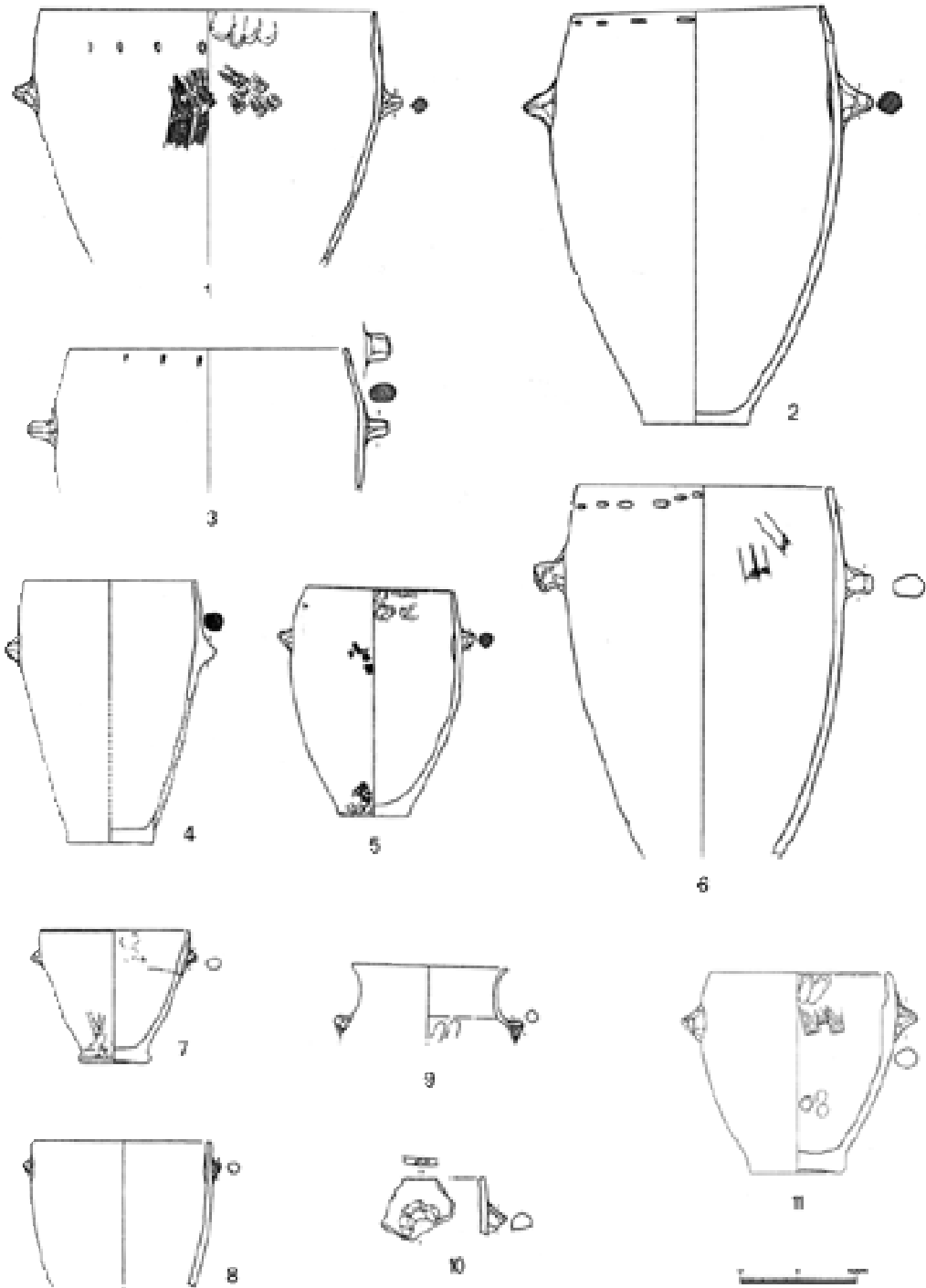
한반도

- 1.옥서리 2.고하리 3.달하리 4.고장동 5.역삼동 6.가좌동 7.미사리 8.공암리 9.황적리 10.조동리 11.아우라지 12.우두동 13.조양동 14.조월리 15.고동 16.양내리 17.계계동 18.현화리 19.철암동 20.백석동 21.신암리 22.군석리 23.관석리 24.고남리 25~27.내곡리·용정동·내수리 28~32.동산·구동·신대동·노은동·용상동 33.수당리 34.영동동 35.성곡 36.호지4 37.원상 38.고죽동 39.용두동 40.수란 41.산정동 42.죽내리 43.고양촌 44~48.서면동·강동·말안동·월성동·용정동 49.아라리 50~57.목곡리·소남리·옥방·어은·상촌리·귀곡동·내촌리·본촌리 58.살나 59~60.대면리·요곡리 61~62.사차리·황성동 63~73.다동동·장계동·관상리·변암리·신정·서동동·망기리·동계리·결단리 73.상모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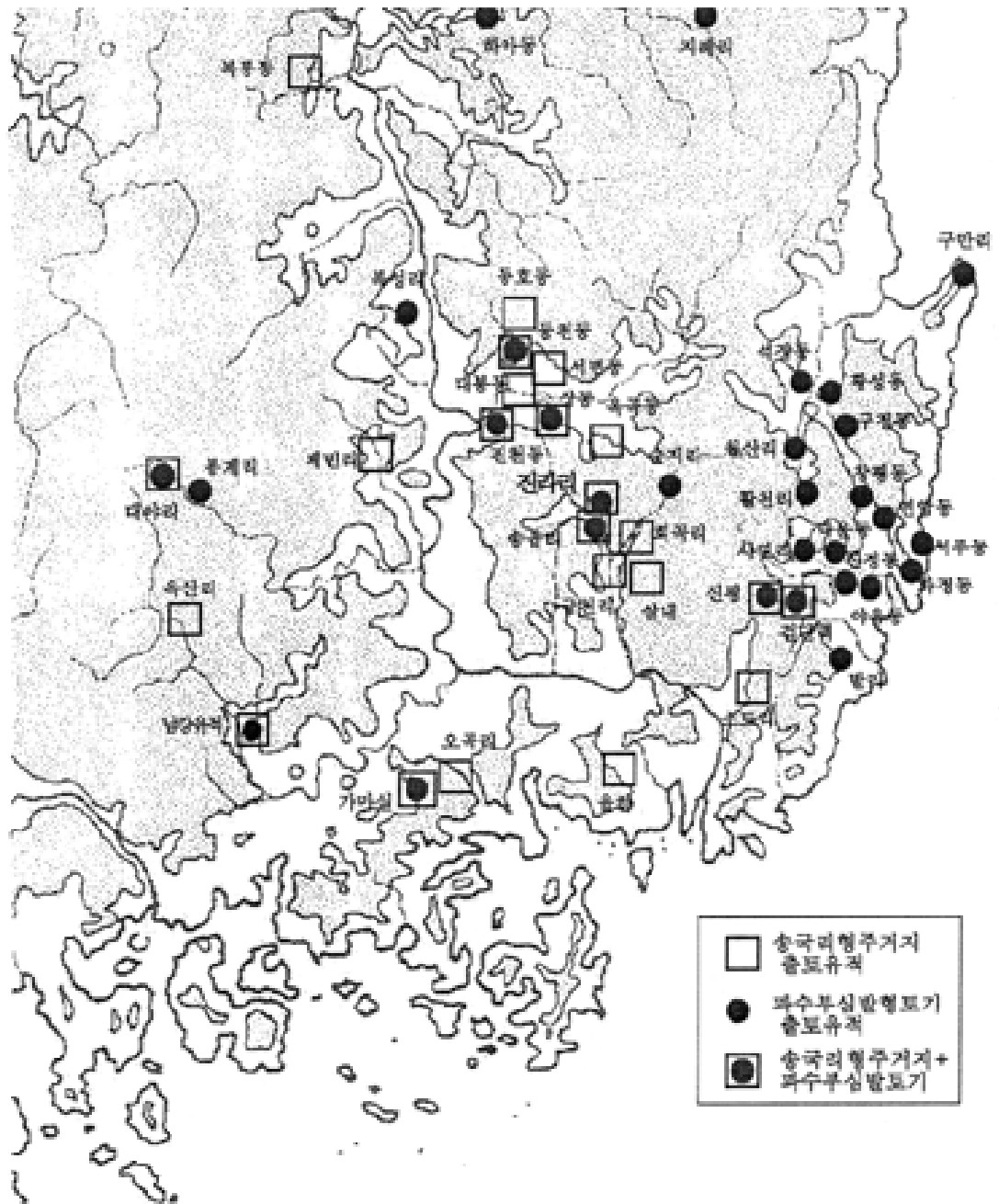
서일본

- 1.南郷手 2.高橋ヶ原 3.吉母原 4.藤原 5.衣文遺跡 6.西川原 7.タナキ=ウ 8.三田宮 I 9.原田 10.宮の後山 11.板屋宮 12.神原 I 13.藤原 14.岡崎 15.長野早田 16.長江 17.中橋手 18.カキ 19.夏川 20.眞井平ヶ本 21.春日宮 22.宇野台 23.瀬田川原 24.中島 25.田村 26.野添田 27.新井 28.門田 29.久良ヶ 30.高原 31.津古土取 32.藤原 33.山北 34.高崎 35.野田の久原 36.井手 37.別所 38.アノモン山 39.天満ヶ原 40.小野 41.北原 42.井ヶ原 43.上菅原 B 44.文園 45.嵐原 46.竹平礼 47.木原 48.宮下 49~51.榎木原·水の谷·藤原·櫻崎宮 52.中尾 53.東田 54~56.小池·磯原 57~59.赤松·下木原·藤原 60.内野ヶ 61~62.七又木地区·松園原 63~66.新宮·室財原·上原·寺崎 67~69.宮下本庄·学園·金岡宮 70.春日 71~73.上ノ原·白ヶ野宮·國山 74~75.前北原·平塚 76~78.角上原地区·古志ヶ原·青島 79~80.三子原·黒原 81.福ヶ原 82.瀬井地区 83~84.平尾山·黒原·黒原宮二 85.三ヶ野 86.田代ヶ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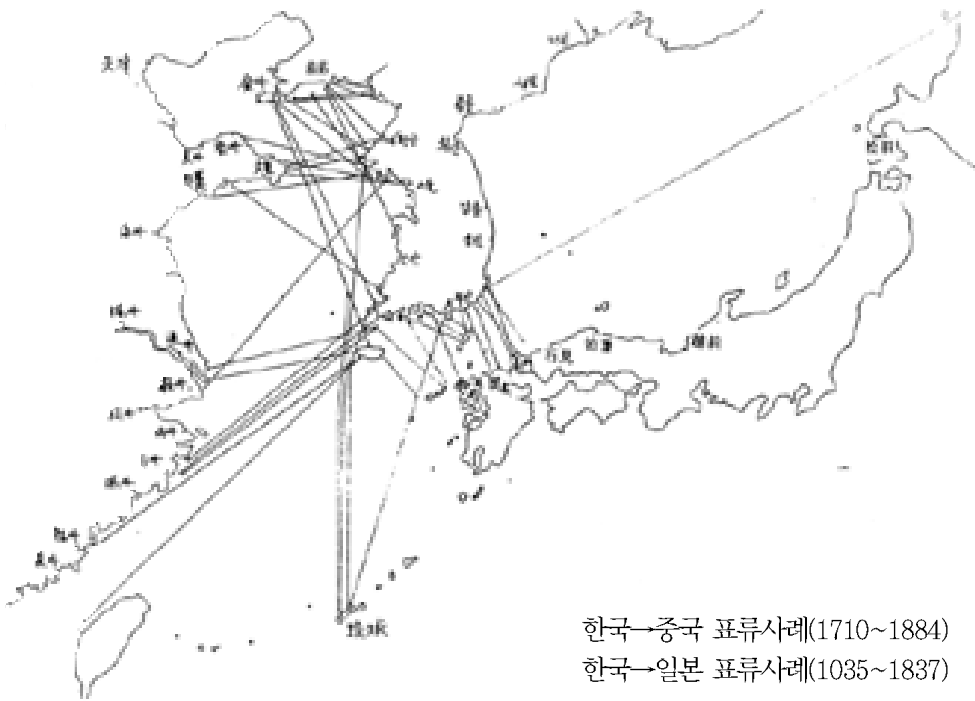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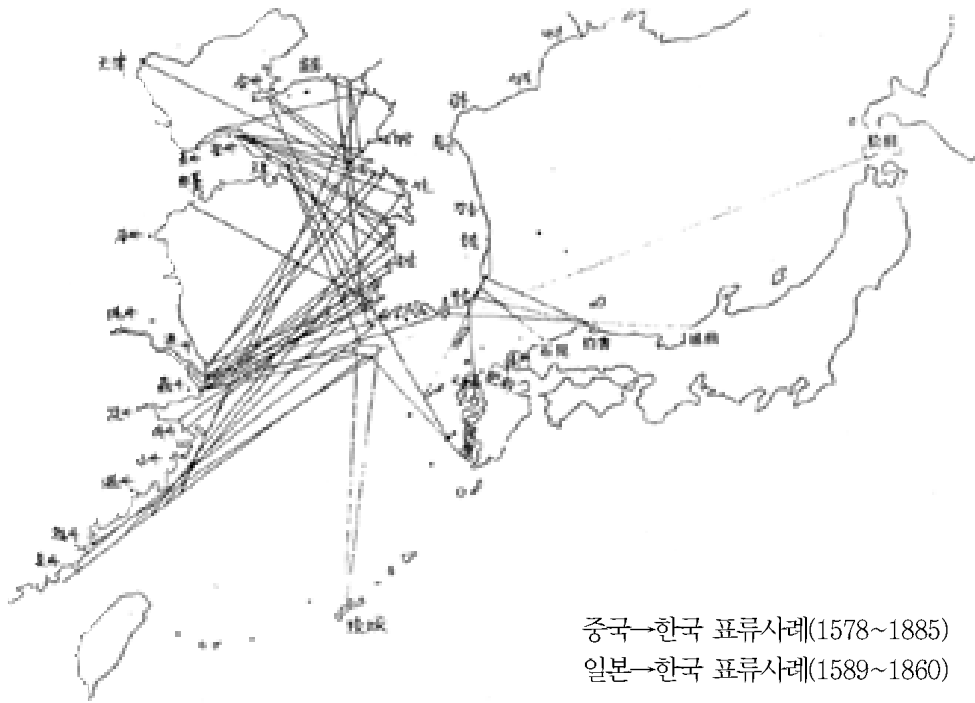
〈도면 9〉 한반도 청동기시대 문물의 일본전파 과정도(천선행 2009)



〈도면 10〉 경상지방 파수부토기(1·6:양산 신평 2·3·5:울산 검단리, 7~10:대구 동천동, 11:청도 진리리)



〈도면 11〉 경상지방 송국리형주거지와 파수부심발형토기 출토유적 분포도



<도면 12> 중국·일본·한국간 문헌확인 표류도(정진술 1992)
(上: 중국·일본→한국으로 표류 下: 한국→중국·일본으로 표류)